

『素問·脈要精微論』의 尺膚診 및 寸關尺三部診 關聯內容의 歷代 注釋에 대한 研究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이정태^{1*}

Study on the Past Explanations about the Palpation of Chuk-bu and Chongwanchuk-sambu of *Somoon*, *Macyojungmiron*

Lee Jeong-tae^{1*}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 : Studying *Naekyung's* relation with confirmation of the three segments in the Chongu-mac palpation and the assignments of five vidcera and six entails. Finding the original principles of the segment confirmation in the Chongu-mac palpation from *Naekyung*.

Method : Analyzing the relating contents of the Palpation of Chuk-bu and Chongwanchuk-sambu in *Somoon*, *Macyojungmiron*. Performing comparative study on the successive doctors' notes.

Result : Found that the confirmation of the three segments in the Chongu-mac palpation and the assignments of five vidcera and six entails was originated from *Naekyung*. The original diagnostic principles of *Naekyung* are more clearly revealed.

Conclusion : *Somoon*, *Macyojungmiron* is about the palpation of Chuk-bu. *Somoon*, *Macyojungmiron* is the origin of Chongu-mac diagnosis. The method of dividing the three segments in Chongu-mac diagnosis is from *Somoon*, *Macyojungmiron*. The Chongu-mac diagnosis should follow the principles found in *Naekyung*.

Key words : *Somoon*(素問), *Macyojungmiron*(脈要精微論), Chukbu-jin, Chongwanchuk-sambu-jin, past explanations, successive notes.

I. 緒 論

* 교신저자 : 이정태,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번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lzt66@hanmail.net Tel : 061-330-3502
접수일(2012년 11월 5일), 수정일(2012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2012년 11월 16일).

『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오는 “尺內兩傍則季脇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 中附上¹⁾, 左外以候肝, 內以

候鬲, 右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外以候心, 內以候膻中. 前以候前, 後以候後. 上竟上者, 胸喉中事也, 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²⁾라는 經文은 尺膚診과 寸口脈診의 寸關尺三部定位 및 寸關尺臟腑分候의 淵源과 原理에 관련이 깊은 내용으로, 歷代 內經 注釋家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정론이 없는 상황 이다.

그 논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가 있다. 첫 번째가 이 부분 經文을 바로 寸關尺三部脈診法에 관련 내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馬蒔·張景岳·張隱庵 등이 그 代表醫家이고, 두 번째가 이것을 寸口脈診法으로 보지 않고 尺膚按診法에 相关 내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楊上善·王冰·丹波元簡 등이 그 代表醫家인데³⁾⁴⁾⁵⁾, 丹波元簡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寸關尺三部脈診法이 『難經』에서 처음 비롯된 것이지 『內經』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 하였다⁶⁾. 현대의 학자들도 이 問題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의 『黃帝內經素問校釋』⁷⁾, 周鳳梧·張燦理의 『黃帝內經素問語釋』⁸⁾, 龍伯堅의 『黃帝內經集解』⁹⁾는 王冰·丹波元簡의 說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南京中醫學院 語釋의 『黃帝內經素問譯釋』¹⁰⁾은 馬蒔·張景岳의

說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于天星은 『黃帝素問直解』에서 이는 單純히 尺膚按診法을 論한 것이지 寸口脈診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按하였다¹¹⁾. 또 張登本の 『白話通解黃帝內經』¹²⁾은 이 句節 내용이 寸口脈診法도 尺膚按診法도 아닌 全身遍診法에 相关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尺膚按診法과 全身遍診法은 현대 한의 학에서 거의 전과가 되지 않았고, 寸口脈診法은 『難經』과 『脈經』이 출현한 이래로 가장 중요한 한방 진단법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런데 寸口脈의 寸關尺三部에 五臟六腑를 配屬하여 分候하는 이론과 방법에 있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의견차가 있음으로 하여 임상응용 또한 일부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五臟六腑의 寸關尺三部의 配屬分候 問題는 우선 寸關尺三部의 分割原理과 관련이 가장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 寸關尺三部의 分割이 어디에서 起源되었고, 臟腑分候의 이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寸口脈診法을 圓만하게 통일하는 捷徑이라 볼 수가 있다.

그러한 思慮로 저자는 寸關尺三部脈診法의 根源 일 가능성이 큰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 脇也 ……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는 經文 내용에 대하여 그것이 尺膚按診法, 獨取寸口脈診法, 寸關尺 臟腑分候法과 어떠한 關聯性이 있는지, 또 이 句節 經文이 提示하고자 하는 本然의 診法 要旨가 무엇인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歷代 主要 內經 注釋家들의 해당 注釋文을 研究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의 影響을 받은 『難經』과 『脈經』의 相关 내용을 검토하 게 되었는데,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 는 바이다.

II. 主要 內經 注釋家들의 해당 注釋原文 및 要點 整理 分析

- 1) 中附上: 본래 原文에는 中字가 위에 붙었는데 『類經』五卷 第二와 『素問直解』에 모두 下屬으로 고쳤고 『素問校勘記』에도 “中字應下屬”이라 하였기에 中附上으로 고친 것이다.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36.)
- 2)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236~237.
- 3) 耿銀鎮. 寸關尺三部脈診法的起源. 石家莊. 河北中醫. 1982.3. pp.2~3.
- 4) 楊牧祥. 淺論寸口診法. 石家莊. 河北中醫. 1983.3. pp.2~4.
- 5) 高爾和. 淺談寸關尺臟腑定位. 石家莊. 河北中醫. 1981.2. pp.15~17.
- 6) 耿銀鎮. 寸關尺三部脈診法的起源. 石家莊. 河北中醫. 1982.3. pp.2~3.
- 7)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236~237.
- 8) 周鳳梧, 張燦理. 黃帝內經素問語釋. 濟南.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5. pp.182~183.
- 9) 龍伯堅. 黃帝內經集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4. pp.242~243.
- 10) 南京中醫學院醫教教研組. 編者. 黃帝內經素問譯釋(第二版).

-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147~148.
- 11) 高士宗 原著. 于天星 按.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82. pp.134~135.
- 12) 張登本 主編. 白話通解黃帝內經 第一卷. 西安. 世界圖書出版公司. 2000. pp.444~445.

1. 楊上善

1) 注釋文 原文

尺內兩旁，則季脇也。(從關至尺澤爲尺也。季脇之部當在尺中央兩旁，不在尺外兩旁，季脇有病當見此處。)尺外以候腎，(尺中兩旁之外，以候兩腎之有病，當見此部也。)尺裏以候腹中，(自尺內兩中間，總候腹中。)附上以候胸中，(附當爲膚，古通用字，故爲附耳。當尺裏以上皮膚，以候胸中之病。平按：『素問』作“附上，左外以候肝，內以候鬲；右外以候胃，內以候脾。上附上，右外以候肺，內以候胸中；左外以候心，內以候臆中。”『甲乙』同。)前候前，後候後。(當此尺裏附前，以候胸腹之前，附後以候背後。平按：『素問』，『甲乙』作前以候前，後以候後。)附上，鬲上也；(當尺裏附上皮膚，以候臆上也。一曰竟上，疑錯。)鬲下者，腹中事也。(當尺裏膚上以下，以爲鬲下之分，即腹中事。平按：“附上，鬲上也，鬲下者，腹中事也”『素問』作“上竟上者，胸喉中事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甲乙』同，惟脛下無足字。)¹³⁾

2) 要點 整理 分析

(1) 診察部位인 “尺，中附上，上附上”에 대한 注釋 經文이 처음에 나오는 診察 部位인 “尺內”，“尺外”，“尺裏”의 尺에 대하여 “從關至尺澤爲尺也”라고 注釋하여 腕의 關部에서 肘의 尺澤穴까지의 긴 區間으로 보았다. 또 다음에 나오는 “附上”을 附上이라고 하고 “附當爲膚，古通用字，故爲附耳。當尺裏以上皮膚。”，“當尺裏附上皮膚”，“當尺裏膚上以下”라고 注釋하여 尺部 內側의 上部와 下部의 皮膚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즉 尺 內側의 上下 皮膚를 살펴보는 診察法으로 해석하고 있다.

(2) 診察 원칙인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한 注釋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하여 “當此尺裏附前，以候胸腹之前，附後以候背後。”라고 注釋하여 尺의 앞쪽과 뒤쪽의 皮膚를 통하여 각각 앞의 胸腹部와 뒤의 背部的 상태를 診察한다고 해석하였다.

(3) 診察 部位인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한 注釋 “上竟上”의 “竟上”을 附上의 誤謬로 보았고, “上竟上”과 “下竟下”를 언급하지 않았다.

2. 王冰

1) 注釋文 原文

尺內兩旁，則季脇也(尺內，謂尺澤之內也。兩旁，各謂尺之外側也。季脇近腎，尺主之，故尺內兩旁則季脇也。)尺外以候腎，尺裏以候腹中(尺外，謂尺之外側。尺裏，謂尺之內側也。次尺外下兩旁則季脇之分，季脇之上腎之分，季脇之內則腹之分也。)附上，左外以候肝，內以候鬲(肝主賁，賁，膈也。)右外以候胃，內以候脾(脾居中，故以內候之。胃爲市，故以外候之。)上附上，右外以候肺，內以候胸中(肺葉垂外，故以外候之。胸中主氣管，故以內候之。)左外以候心，內以候臆中(心，主臆中也。臆中，則氣海也，噎也。)前以候前，後以候後(上前謂左寸口，下前謂胸之前膺及氣海也。上後謂右寸口，下後謂胸之後背及氣管也。)上竟上者，胸喉中事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上竟上，至魚際也；下竟下，謂盡尺之動脈處也。少腹胞，氣海在膀胱，腰股膝脛足中之氣，動靜皆分其遠近及連接處所名目以候之，知其善惡也。)¹⁴⁾

2) 要點 整理 分析

(1) 診察部位인 “尺，中附上，上附上”에 대한 注釋 尺에 대하여 “尺內，謂尺澤之內也。”라고 注釋하여 尺澤穴이 있는 肘關節 內側 部位를 살피는 診法으로 보았고, 中附上과 上附上은 따로 해석하지 않았다.

(2) 診察 원칙인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한 注釋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하여 “上前謂左寸口，下前謂胸之前膺及氣海也。上後謂右寸口，下後謂胸之後背及氣管也。”라고 注釋하여 左側 寸口 部位로 前膺과 氣海를 診察하고 右側 寸口 部位로 背部와 氣管을 診察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위에서 楊上善이 尺의 앞면과 뒷면의 皮膚를 診察 部位로 삼는다는 注釋과는 전혀 다른 견해이다.

13) 楊上善 原著. 李克光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p.510~511.

14)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120~121.

(3) 診察 部位인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한 注釋 經文 “上竟上者，胸喉中事也；下竟下者，小腹腰肢膝脛足中事也”의 “上竟上”과 “下竟下”라는 診察部位에 대하여 “上竟上，至魚際也；下竟下，謂盡尺之動脈處也.”라고 注釋하여 掌根 上部의 魚際部位와 肘關節 內側 橫紋部位의 動脈이 뛰는 部位로 보았다. 즉 尺膚 內側의 上下 兩端으로 分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上竟上”과 “下竟下”라는 部位를 살펴 해당되는 人體 部位의 疾病상태를 診察할 수 있는 이치에 대하여 “少腹胞，氣海在膀胱，腰肢膝脛足中之氣，動靜皆分其遠近及連接處所名目以候之，知其善惡也.”라고 注釋하여 人體 各 部位의 氣運 動靜이 部位의 으로 멀고 가까움에 따라 尺膚部位에서도 멀고 가깝게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內經에서 提示하는 人體 各 部位의 尺膚 分候 原理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3. 滑壽

1) 注釋文 原文

尺內兩旁，則季脇也（兩旁謂內外側也，季脇近腎，尺主之，尺下兩旁，季脇之分，季脇之上，腎之分，乃尺中也。）尺外以候腎，尺裏以候腹中，附上，左外以候肝（附上，如越人所定關中也。）內以候膈，右外以候胃，內以候脾（脾居中，故內候，胃爲市，故外候。）上附上（如越人所是寸口也。）右外以候肺，內以候胸中（續 肺葉垂外，故外候，胸中主氣管，故內候。）左外以候心，內以候臆中（續 心主膈中，臆中氣海也。）前以候前，後以候後（續 上前字指左寸，下前字指胸之前膺及氣海也。上後字指右寸，下後字指胸之後背及氣管也。）上竟上者，胸喉中事也，下竟下者，少腹腰肢膝脛足中事也（續 上竟上，至魚際也，下竟下，謂盡尺之脈動處也。）¹⁵⁾

2) 要點 整理 分析

(1) 診察部位인 “尺，中附上，上附上”에 대한 注釋 經文의 “中附上”을 “附上，如越人所定關中也.”라고 注釋하고, “上附上”을 “如越人所是寸口也.”라고 注釋

을 하여, 寸關尺 三部에 대한 脈診法으로 보고 있다.

(2) 診察 원칙인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한 注釋 王冰의 注釋文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아, 王冰의 說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診察 部位인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한 注釋 滑壽는 “上竟上”과 “下竟下”라는 診察部位에 대하여 “上竟上，至魚際也；下竟下，謂盡尺之動脈處也.”라고 注釋하였는데, 이는 王冰의 注釋文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런데 王冰은 이 句節을 尺膚按診法으로 보고 “下竟下”를 肘關節 內側 橫紋部位의 動脈이 뛰는 部位라고 주장하였는데, 滑壽는 이 句節을 寸關尺三部脈診法으로 보면서 “下竟下”를 寸口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肘關節 內側 動脈部位의 診法으로 해석하였으니 앞뒤 내용이 一貫되지 못하다.

4. 馬蒔

1) 注釋文 原文

此言臟腑之脈見之於各部者如此。尺內者，左右尺部也。尺內與季脇相近，季脇者，肋骨盡處也，其穴名章門。尺之外側所以候腎，尺之內側所以候腹中。腹中者，小腹中也。附而上之，乃關脈也。左關之外所以候肝，左關之內所以候胃；右關之外所以候胃，右關之內所以候脾。又附而上之，即寸部也。右寸之外所以候肺，右寸之內所以候胸中；左寸之外所以候心，左寸之內所以候臆中。

大抵人身之脈，左手爲春爲夏，爲東爲南，爲前爲外；右手爲秋爲冬，爲西爲北，爲後爲內。左之寸口，即人迎也，名曰前，前之所候，皆胸之前膺及臆中之事。右之寸口，即氣口也，名曰後，後之所候，皆胸之後背及氣管之事。凡脈推而升之，謂自尺而寸，乃上竟上也，所以候胸與喉中之事。凡脈推而下之，謂自寸而尺，乃下竟下也，所以候少腹腰肢膝脛足中之事。其左右上下之脈，各有所屬者如此。後世王叔和之脈，其分部與此大同也歟？¹⁶⁾

15) 滑壽 原著. 李玉清等 主編. 滑壽醫學全書讀素問鈔.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8~19.

16) 馬蒔 原著. 田代華 主校.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129~130.

2) 要點 整理 分析

(1) 診察部位인 “尺, 中附上, 上附上”에 대한 注釋

尺에 대하여 “此言臟腑之脈見之於各部者如此. 尺內者, 左右尺部也.”라고 注釋하여 본 句節 經文을 臟腑 脈診法에 관한 내용으로 보면서 尺이 바로 寸關尺의 尺部脈이라고 하였다. 다시 中附上과 上附上에 대하여 “附而上之, 乃關脈也. …… 又附而上之, 即寸部也.”라고 注釋하여 關部脈과 寸部脈으로 보았다. 즉 본 句節 經文을 全體的으로 寸關尺三部脈診法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2) 診察 원칙인 “前以候前, 後以候後”에 대한 注釋

“前以候前, 後以候後”에 대하여 “左之寸口, 即人迎也, 名曰前, 前之所候, 皆胸之前膺及膻中之事. 右之寸口, 即氣口也, 名曰後, 後之所候, 皆胸之後背及氣管之事.”라고 注釋하여 左寸部脈과 右寸部脈으로 각각 가슴 앞쪽과 등 뒤쪽을 診察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王冰의 說을 따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馬蒔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前以候前”의 앞의 前이 左寸口가 되고 “後以候後”의 앞의 後가 右寸口가 되는 이치에 대해 “大抵人身之脈, 左手為春為夏, 為東為南, 為前為外; 右手為秋為冬, 為西為北, 為後為內.”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는데, 즉 左手는 春夏 木火에 해당되어 前이 되는 것이고, 右手는 秋冬 金水에 해당되어 後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左가 陽이 되고 右가 陰이 되는 이치와 相通한 것으로 一理가 있어 보이며, 左右 寸口脈 臟腑分候의 部位確定 原理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본다.

(3) 診察 部位인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한 注釋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하여 “凡脈推而升之, 謂自尺而寸, 乃上竟上也. …… 凡脈推而下之, 謂自寸而尺, 乃下竟下也.”라고 注釋하여 自尺而寸이 上竟상이 되고 自寸而尺이 下竟下が 된다고 하였는데, 그 뜻이 다소 모호하다.

5. 吳昆

1) 注釋文 原文

尺內兩旁, 則季脇也(尺內兩旁, 尺上之兩側也. 季脇, 脇下軟肉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尺外,

外側也. 尺裏, 內側也. 腹中, 少腹中也.) 附上, 左外以候肝, 內以候膈, 右外以候胃, 內以候脾(附上, 謂關也. 鬲, 鬲膜也.) 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外以候心, 內以候膻中(上附上, 謂寸也. 膻中, 兩乳之間, 謂之氣海.) 前以候前, 後以候後(前, 診者指前, 後, 診者指後. 候前, 候病人之前, 謂胸腹之上也; 候後, 候病人之後, 謂肩背之後也.) 上竟上者, 胸喉中事也, 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上竟上, 寸之極也. 下竟下, 謂尺之盡也.)¹⁷⁾

2) 要點 整理 分析

(1) 診察部位인 “尺, 中附上, 上附上”에 대한 注釋

中附上과 上附上에 대하여 “附上, 謂關也. …… 上附上, 謂寸也.”라고 注釋하여 이 句節을 寸關尺脈三部診法에 관한 내용으로 보았는데, 이는 滑壽와 馬蒔의 주장과 一脈相通한다.

(2) 診察 원칙인 “前以候前, 後以候後”에 대한 注釋

“前以候前, 後以候後”에 대하여 “前, 診者指前, 後, 診者指後. 候前, 候病人之前, 謂胸腹之上也; 候後, 候病人之後, 謂肩背之後也.”라고 注釋하여 診脈하는 醫師의 診指(診脈하는 手指)의 前部와 後部를 통하여 身體의 前面과 後面의 疾病 상황을 살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診指的 前部와 後部라면 문맥상으로 보아 寸口脈의 縱軸의 아래쪽 편과 위쪽 편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寸關尺을 각각 內와 外로 分割한데다가 또다시 上下로 分割한다는 말이 되는데, 좁기도 하고 짧기도 한 三部脈을 각각 이렇게 一重, 二重으로 分割하여 診察한다는 것은 現實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사료된다.

이 부분에 대한 吳昆의 해석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그가 尺·中附上·上附上의 內와 外도 各部 脈의 前半部와 後半部로 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張景岳의 해석과 같아진다.

(3) 診察 部位인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한 注釋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하여 “上竟上, 寸之極也. 下竟下, 謂尺之盡也.”라고 注釋하여 寸部脈의 寸側 끝 부분과 尺部脈의 尺側 끝 부분이라고 하였는

17) 吳昆 原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p.81~82.

데, 이는 馬蒔의 “凡脈推而升之, 謂自尺而寸, 乃上竟上也. …… 凡脈推而下之, 謂自寸而尺, 乃下竟下也.” 라고 한 注釋보다 뜻이 훨씬 더 분명하다.

6. 張介賓

1) 注釋文 原文

尺內兩旁, 則季脇也(尺內者, 關前曰寸, 關後曰尺, 故曰尺內. 季脇, 小肋也, 在脇下兩旁, 爲腎所近. 故自季脇之下, 皆尺內主之. 愚按: 尺者, 對寸而言. 人身動脈雖多, 惟此氣口三部, 獨長一寸九分, 故總曰寸口; 分言之, 則外爲寸部, 內爲尺部. 外爲陽, 故寸內得九分, 陽之數也; 內爲陰, 故尺內得一寸, 陰之數也. 二難曰: 從關至尺是尺內, 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是寸口內, 陽之所治也. 然則關之前曰寸, 關之後曰尺, 而所謂關者, 乃間於尺寸之間, 而爲陰陽之界限, 正當掌後高骨處是也. 滑伯仁曰: 手太陰之脈, 由中焦出行, 一路直至兩手大指之端, 其魚際後一寸九分, 通謂之寸口, 於一寸九分之中, 曰寸曰尺而關在其中矣. 其所以云尺寸者, 以內外本末對待爲言, 而分其名也. 如蔡氏云: 自肘中至魚際, 得同身寸之一尺一寸, 自肘前一尺爲陰之位, 魚際後一寸爲陽之位. 太陰動脈, 前不及魚際橫紋一分, 後不及肘中橫紋九寸. 故古人於寸內取九分爲寸, 尺內取一寸爲尺, 以契陽九陰十之數. 其說似通, 但考之骨度篇, 則自肘至腕長一尺二寸五分, 而與此數不合, 蓋亦言其意耳.)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尺外, 尺脈前半部也. 尺裏, 尺脈後半部也. 前以候陽, 後以候陰. 人身以背爲陽, 腎附於背, 故外以候腎. 腹爲陰, 故裏以候腹. 所謂腹者, 凡大小腸膀胱命門皆在其中矣. 諸部皆言左右, 而此獨不分者, 以兩尺皆主乎腎也. 臟腑左右, 義詳『附翼』三卷脈候部位論及三焦包絡命門辨中.)

中附上, 左外以候肝, 內以候膈;(中附上, 言附尺之上, 而居乎中者, 即關脈也. 左外, 言左關之前半部, 內言左關之後半部, 餘仿此. 肝爲陰中之陽臟, 而亦附近於背, 故外以候肝, 內以候膈. 舉膈而言, 則中焦之膈膜膽腑皆在其中矣.)

右外以候胃, 內以候脾.(右關之前所以候胃, 右關之後所以候脾. 脾胃皆中州之官, 而以表裏言之, 則胃爲

陽, 脾爲陰, 故外以候胃, 內以候脾. 愚按: 寸口者, 手太陰也. 太陰行氣於三陰, 故曰三陰在手而主五臟. 所以本篇止言五臟而不及六腑, 即始終禁服等篇, 亦皆以寸口候三陰, 人迎候三陽也. 然胃亦腑也, 而此獨言之何也? 觀玉機真藏論曰: 五臟者皆稟氣於胃, 胃者五臟之本也, 臟氣者不能自致於手太陰, 必因於胃氣乃至於手太陰也. 故胃氣當察於此. 又如五臟別論曰: 五味入口, 藏於胃以養五臟氣, 氣口亦太陰也. 是以五臟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 然則此篇雖止言胃, 而六腑之氣, 亦無不見乎此矣.)

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上附上, 言上而又上, 則寸脈也. 五臟之位, 惟肺最高, 故右寸之前以候肺, 右寸之後以候胸中. 胸中者, 膈膜之上皆是也.)

左外以候心, 內以候膻中.(以肺皆居膈上, 故左寸之前以候心, 左寸之後以候膻中. 膻中者, 兩乳之間, 謂之氣海, 當心包所居之分也. 愚按: 本論五臟應見之位, 如火王於南, 故心見左寸. 木王於東, 故肝見左關. 金王於西, 故肺見右寸. 土王於中而寄位西南, 故脾胃見右關. 此即河圖五行之序也.)

前以候前, 後以候後.(此重申上下內外之義而詳明之也. 統而言之, 寸爲前, 尺爲後; 分而言之, 上半部爲前, 下半部爲後, 蓋言上以候上, 下以候下也.)

上竟上者, 胸喉中事也; 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竟, 盡也. 言上而盡於上, 在脈則盡於魚際, 在體則應於胸喉; 下而盡於下, 在脈則盡於尺部, 在體則應於少腹足中. 此脈候上下之事也. 愚按: 本篇首言尺內, 次言中附上而爲關, 又次言上附上而爲寸, 皆自內以及外者, 蓋以太陰之脈, 從胸走手, 以尺爲根本, 寸爲枝葉也. 故凡人之脈, 寧可有根而無葉, 不可有葉而無根. 如論疾診尺篇曰: 審其尺之緩急小大滑澀, 肉之堅脆, 而病形定矣. 是蓋所重在本耳. 又按: 本篇外內二字, 諸家之注, 皆云內側外側. 夫曰內外側者, 必脈形扁闊而或有兩條者乃可. 若謂診者之指側, 則本篇文義乃舉脈體而言, 且診者之左外, 則病者之右手也, 當言候胃, 不當言候肝矣. 於義不通. 如下文前以候前, 後以候後, 上竟上, 下竟下者, 是皆內外之謂. 觀易卦六爻, 凡畫卦者, 自下而上, 上三爻爲外卦, 下三爻爲內卦, 則其上下內外之義明矣. 又有以浮取爲外, 沉取爲內者, 於義亦通, 均俟明者辨正. 又按: 本篇上竟上

者言胸喉中事，下竟下者言少腹足膝中事，分明上以候上，下以候下，此自本經不易之理。而王氏脈經，乃謂心部在左手關前寸口是也，與手太陽爲表裏，以小腸合爲腑，合於上焦；肺部在右手關前寸口是也，與手陽明爲表裏，以大腸合爲腑，合於上焦。以致後人遂有左心小腸，右肺大腸之配，下反居上，其謬甚矣。據其所云，不過以臟腑之配合如此；抑豈知經分表裏，脈自不同。如脾經自足而上行走腹，胃經自頭而下行走足，升降交通，以成陰陽之用；又豈必上則皆上，下則皆下，而謂其盡歸一處耶？且自秦漢而下，未聞有以大小腸取於兩寸者，扁鵲仲景諸君心傳可考；自晉及今，乃有此謬，訛以傳訛，愈久愈遠，誤者可勝言哉！無怪乎醫之日拙也。此之不經，雖出於脈訣之編次，而創言者謂非叔和而誰？¹⁸⁾

2) 要點 整理 分析

(1) 診察部位인 “尺，中附上，上附上”에 대한 注釋

尺에 대하여 “尺內者，關前曰寸，關後曰尺 …… 尺者，對寸而言。…… 關之前曰寸，關之後曰尺。”라고 注釋하였고，中附上에 대하여 “中附上，言附尺之上，而居乎中者，即關脈也。”라고 注釋하였으며，上附上에 대하여 “上附上，言上而又上，則寸脈也。”라고 注釋하여，이 句節을 寸關尺三部脈診法에 관한 내용으로 보았다.

張景岳은 특히 尺中附上上附上 三部脈의 內外部位인 尺內，尺外，中附上內，中附上外，上附上內，上附上外에 대하여 “尺外，尺脈前半部也。尺裏，尺脈後半部也。…… 中附上，…… 左外，言左關之前半部，內言左關之後半部，餘仿此。…… 左寸之前以候心，左寸之後以候臍中。”라고 注釋하여，尺關寸 三部脈을 각각 前半부와 後半부로 다시 2等分하여 각각 診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타 여러 醫家들의 注釋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다.

그는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치에 대하여 “本篇外內二字，諸家之注，皆云內側外側。夫曰內外側者，必脈形扁闊而或有兩條者乃可。…… 觀易卦六爻，凡畫卦者，自下而上，上三爻爲外卦，下三爻爲內卦，則其

上下內外之義明矣。又有以浮取爲外，沉取爲內者，於義亦通，均俟明者辨正。”이라고 注釋하였는데，즉 寸關尺 各部의 脈은 그 幅이 좁아서 內와 外로 나누어 診察하는 것은 現實의 어려움이 많고，또 易卦의 六爻에서 上三爻는 위에 있으나 外卦로 간주하고 下三爻는 아래에 있으나 內卦로 간주하는 이치와 같이 脈의 上下가 바로 脈의 內外가 된다는 것이다.

(2) 診察 원칙인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한 注釋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하여 “此重申上下內外之義而詳明之也。統而言之，寸爲前，尺爲後；分而言之，上半部爲前，下半部爲後，蓋言上以候上，下以候下也。”라고 注釋하여 寸關尺 三部脈을 통하여 臟腑와 身形의 상황을 診察하는 原理는 바로 人體의 前後，上下，內外的 部位와 寸關尺 三部脈의 前後，上下，內外的 部位를 그대로 서로 대응시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本篇上竟上者言胸喉中事，下竟下者言少腹足膝中事，分明上以候上，下以候下，此自本經不易之理。”라고 하여 “上以候上，下以候下”의 診脈원칙은 內經의 不易의 原理라고 強調하였다. 이는 王冰이 “少腹胞，氣海在膀胱，腰股膝脛足中之氣，動靜皆分其遠近及連接處所名目以候之，知其善惡也。”라고 注釋한 人體部位의 尺膚分候原理와 一脈相通한다.

(3) 診察 部位인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한 注釋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하여 “竟，盡也。言上而盡於上，在脈則盡於魚際，在體則應於胸喉；下而盡於下，在脈則盡於尺部，在體則應於少腹足中。此脈候上下之事也。”라고 注釋하여 寸部脈의 寸側 끝인 魚際部位과 尺部脈의 尺側 끝이 되는 部位라고 하였다. 이는 吳昆의 “上竟上，寸之極也。下竟下，謂尺之盡也。”라는 注釋과 일치하다.

7. 李中梓

1) 注釋文 原文

尺內兩傍，則季脇也（關前曰寸，關後曰尺。季脇，小肋也，在脇之下，爲腎所近，故自季脇之下，皆尺內主之。）尺外以候腎，尺裏以候腹（尺外，尺脈前半部也；尺裏，尺脈後半部也。前以候陽，後以候陰，人身以背爲陽，腎附於背，故外以候腎，腹爲陰，故裏以候腹，而

18) 張景岳 原著.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7~79.

大小腸膀胱命門皆在其中矣。諸部言左右，此獨不分者，以兩尺皆主乎腎也。)中附上，左外以候肝，內以候膈(中附上者，言附尺之上而居乎中，即關部也。左外，言左關之前半部；內者，言左關之後半部也。肝爲陰中之陽，而亦附近於背，故外以候肝。內以候膈，舉膈而中焦之膈膜膽腑皆在其中矣。)右外以候胃，內以候脾(右關前半候胃，右關後半候脾，脾胃皆處中州，而以表裏言之，則胃爲陽，脾爲陰，故外以候胃，內以候脾。)上附上，右外以候肺，內以候胸中(上附上者，上而又上，則寸部也。五臟之位，肺處至高，故右寸前以候肺。右寸後以候胸中，言胸中而膈膜之上皆是矣。)左外以候心，內以候臆中(左寸之前以候心，左寸之後以候臆中。臆中者，即心胞絡也。按：『靈蘭秘典論』有臆中而無胞絡，以臆中爲臣使之官，喜樂出焉。『靈樞』敘經脈，有胞絡而無臆中，而曰動則喜笑不休，正與喜樂出焉之句相合。夫喜笑屬火之司，則知臆中與心應，即胞絡之別名也。)¹⁹⁾

2) 要點 整理 分析

(1) 診察部位인 “尺，中附上，上附上”에 대한 注釋

尺·中附上·上附上과 尺·中附上·上附上의 內外 部位인 尺內，尺外，中附上內，中附上外，上附上內，上附上外에 대하여 張景岳의 注釋文의 핵심 部分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張景岳의 說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2) 診察 원칙인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한 注釋이 部分에 대하여 注釋을 하지 않았다.

(3) 診察 部位인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한 注釋이 部分에 대하여 注釋을 하지 않았다.

(4) 기타

李仲梓의 獨自의인 주장이 있다면, 原文 “左外以候心，內以候臆中”에 대하여 “左寸之前以候心，左寸之後以候臆中。臆中者，即心胞絡也。”라고 注釋하여 臆中을 心胞絡으로 보았고, 또 그 이유에 관하여 “『靈蘭秘典論』有臆中而無胞絡，以臆中爲臣使之官，喜樂出焉。『靈樞』敘經脈，有胞絡而無臆中，而曰動則喜笑不休，正與喜樂出焉之句相合。夫喜笑屬火之司，則

知臆中與心應，即胞絡之別名也。”라고 注釋하여 臆中이 心과 呼應되고 또 胞絡의 別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8. 丹波元簡

1) 注釋文 原文

尺內兩旁則季脇也(簡按：王注尺內謂尺澤之內也。此即診尺膚之部位。平人氣象論云，尺澀脈滑，尺寒脈細，王注亦云，謂尺膚也。邪氣臟腑病形篇云，善調尺者，不待於寸，又云，夫色脈與尺之相應，如桴鼓影響之相應也。論疾診尺篇云，尺膚澤，又云，尺肉弱。十三難云，脈數尺之皮膚亦數，脈急尺之皮膚亦急。史記倉公傳亦云，切其脈，循其尺。仲景云，按寸不及尺，皆其義也。而其所以謂之尺者，說文，尺，十寸也。人手卻十分動脈爲寸口，十寸爲尺，尺所以指。尺，規矩事也。從屍從乙。乙，所識也。周制，寸尺咫尋常仞諸度量，皆以人之體爲法。徐鍇曰：家語曰，布指知尺，舒肱知尋。大戴禮云：布指知寸，布手知尺，舒肱知尋。明是尺即謂臂內一尺之部分，而決非寸關尺之尺也。寸口分寸關尺三部，昉於難經，馬張諸家以寸關尺之尺釋之，與經旨差矣。今據王義考經文，圖左方。)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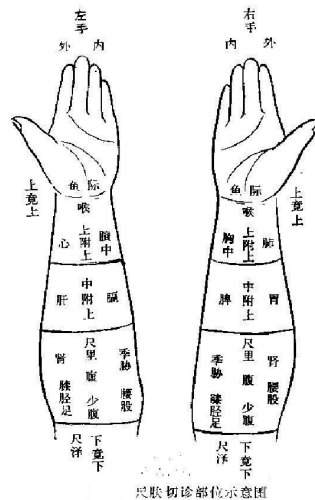


그림 1. 尺膚切診部位示意圖

19) 李中梓 原著. 郭霽春, 高文壽 語譯. 內經知要補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3. pp.52~53.

20) 丹波元簡 原著.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一素問識.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p.88~89.

以候腹中(張志高並以中字屬下句, 爲中附上, 是也。)左外以候肝, 內以候膈(何夢瑤醫編云: 按心肺肝腎, 臟也, 反候於外, 胸中膈膜包裹此臟者也, 反候於內, 恐傳寫之誤. 當以胃外脾內例之, 易其位爲是. 簡按: 此說有理, 然舊經文果如此否, 亦難必矣. 前以候前, 後以候後(簡按: 前者, 臂內陰經之分也, 後者, 臂外陽經之分也. 論疾診尺篇云: 肘前獨熱者, 膺前熱, 肘後獨熱者, 肩背熱, 即其義也. 王以左爲前, 以右爲後, 諸家並從其說, 非也. 上附上, 右外以候胃(宋本胃作肺, 諸本同, 當改.) 膝脛足中事也(甲乙, 無足字.)

2) 要點 整理 分析

(1) 診察部位인 “尺, 中附上, 上附上”에 대한 注釋

尺에 대하여 “王注尺內謂尺澤之內也. 此即診尺膚之部位.”라고 注釋하여 王氷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 句節이 尺膚按診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마디로 단정하였다. 다시 “明是尺即謂臂內一尺之部分, 而決非寸關尺之尺也.”라고 注釋하여 이 句節 내용이 寸關尺脈診法과는 관계가 없다고 強調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寸口分寸關尺三部, 助於難經, 馬張諸家以寸關尺之尺釋之, 與經旨差矣.”라고 注釋하여 寸口部位를 寸關尺三部로 分割하여 診脈하게 된 것은 『內經』이 아니고 『難經』에서 처음 始作된 것으로 馬蒔와 張景岳 등이 寸關尺의 尺으로 해석한 것은 『內經』의 뜻과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丹波元簡은 王氷의 說을 근거로 삼고 『內經』經文을 仔細히 살펴서 “尺膚切診部位示意圖”를 그려 添附하기까지 하였는데, 著者は 이 그림이 本 句節 經文의 要旨를 있는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2) 診察 원칙인 “前以候前, 後以候後”에 대한 注釋

“前以候前, 後以候後”에 대하여 “前者, 臂內陰經之分也, 後者, 臂外陽經之分也.”라고 注釋하여 앞의 前字는 臂內의 手三陰經이 分布되는 皮膚 部位를 뜻하고, 앞의 後字는 臂外의 手三陽經이 分布되는 皮膚 部位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에 대하여 “論疾診尺篇云: 肘前獨熱者, 膺前熱, 肘後獨熱者, 肩背熱, 即其義也.”라고 注釋하여 “前以候前, 後以候後”가 다른 아닌 內經 本來의 尺膚按診法의 基本原理임을 強調하였다. 나아가서 王氷이 이

前字를 左寸部로 보고 이 後字를 右寸部로 본 것을 여러 醫家들이 따른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 診察 部位인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한 注釋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해서는 注釋을 하지 않았다.

9. 張隱庵

1) 注釋文 原文

尺內兩旁, 則季脇也(此審別形身臟腑外內之法也. 尺內, 尺中也. 兩旁, 兩尺部之外旁也. 季脇, 兩脅之下杪也. 此節首言兩旁, 次言前後, 次言上下. 蓋以左右三部之脈, 兼候形身之上下四旁, 是關部之兩旁, 即形身之兩脇, 寸部之兩旁, 即形身之兩腋. 書不盡言, 欲後學之引伸也. 此答帝問, 乍在內, 乍在外, 奈何? 楊元如曰: “此節照應推而內之, 外而不內, 後內以候膈, 內以候胸中, 照應推而外之, 內而不外.”「眉批: 推而內之, 外而不內, 身有熱者, 即三部之兩旁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尺以候腎, 以左右兩尺而候兩腎也. 兩腎附於季脇, 是季脇之內, 乃是兩腎. 兩腎之內, 乃是腹中, 故以尺內候腹中, 尺外以候腎. 尺之兩旁以候季脇, 是兩旁更出於外也. 所謂外內者, 脈體本圓, 用指向外以候內, 向內以候外, 候脈之兩側也. 平按以候中, 乃五臟之本位也. 夫五臟之氣, 行於脈中, 出於脈外, 如脈氣之向內數急, 則在內之皮膚亦急, 脈氣之向外數急, 則在外之皮膚亦急. 故所謂季脇者, 即腎氣之出於季脇也, 而以尺部向外之兩旁以候之. 所謂腹中者, 即兩腎之中也, 故以尺部之向裏以候之, 即如胸中膈中者, 肺臟與中氣相通, 膈中乃心主之相位. 楊元如曰: “所謂外者, 乃六腑之本位, 蓋脈居歧骨之外, 故以本位爲外, 而偏於裏者爲內也.”上節內字訓作部字, 此之裏字即是內字. 「眉批: 用指向外向內者, 謂指法也. 尺部之向外向內者, 謂脈體也.」)

中附上, 左外以候肝, 內以候膈(中附上者, 附左尺而上, 左手之關脈也. 心肝居左, 故左以候肝. 鬲者, 胸膈內之鬲也. 肝居膈內, 故以關候肝, 鬲氣在中, 故以內候鬲. 楊元如曰: “膈者, 謂膈肉之下, 肝脾所居之郭郭也.”「眉批: 莫子晉曰: “胸中在上, 腹中在下, 膈居中

央，故分寸關尺。內以候之右，附上以候脾胃，則肺與大腸，心與小腸，不言而可知矣。”)

右外以候胃，內以候脾（右外者，附右尺而上，右手之關脈也。脾主中土，故以關內候脾，陰內而陽外，故以關外候胃。脾主中土，故以關內候脾，陰內而陽上，故以關外以候胃。張兆璜曰：“此章以形身配天地之上下四旁，以土居中央，故以關內候脾。”莫子晉問曰：“六腑只候胃，而別腑何以候之？”曰：“五臟之血氣，皆胃腑之所生，故臟氣不能自至於手太陰，必因於胃氣，乃至於手太陰也。是以本經論凡論五臟，必及於胃，而餘腑多不語焉，然而臟腑雌雄各有並合。故曰：診合微之事，追陰陽之變，知陰者知陽，知陽者知陰，會心者自明也。”莫仲超曰：“診候之法，各有不同，如此篇之法以左右之前後上下，以候形身之外內上下者也。如三部九候之法，以脈之上中下，而候形身臟腑之上中下也。有以心肝居左，脾肺居右，浮為在腑，沉為在臟，蓋以臟腑之經氣相通，故於一部之中，而可以候臟候腑也。有以皮毛之氣候肺，肌脈之氣候心脾，筋骨之氣候肝腎，蓋五臟之氣合於皮肉筋骨，故以舉按輕重，而候五臟之氣者也。診法不同，各具其理，善診者俱宜明了在心，隨機應變於指下。”)

上附上，右外以候肺，內以候胸中（上附上右者，從右關而上，右寸口也。心肺居上為陽，故以兩寸候氣，胸中者，宗氣之所居也。經曰：“宗氣積於胸中，命曰氣海，上出於肺，循喉嚨而行呼吸。”)

左外以候心，內以候臍中（左外，左寸口也。臍中者臣使之官，心主之相位也。張兆璜問曰：“『經』言心肝居左，脾肺居右，是臟氣之出於左右，抑臟體之偏與？”曰：“天為陽，地為陰，東南為陽，西北為陰。聖人面南而立，左為陽，右為陰。天一生水，水生木，木生火，是以心肝居左也；地二生火，火生土，土生金，是以脾肺居右也。又，心主脈，肝主血，血脈生於水精，是以左手三部俱主血；肺主周身之氣，脾主元真之氣，氣生於火，是以右手三部皆主氣。此皆陰陽互換之妙，善診者不可不知。”)

前以候前，後以候後（前曰廣明，後曰太衝，寸為陽，尺為陰，故以兩手關前以候形身之前，關後以候形身之後。）

上竟上者，胸喉中事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

中事也（上竟上者，從尺關而直上於魚也。下竟下者，從寸關而直下於尺也。夫身半以上為天，身半以下為地，此又以陰陽之氣竟上竟下，而候形身之上下也。張兆璜問曰：“前後上下，在竟字中分別。前後者，以寸尺定位也。上下者，從下而上，從上而下也。首言兩旁，次言前後，蓋以兩手之脈，平以分之。有如文王之卦，離南坎北，震東兌西，以候形身之四旁。上竟上，下竟下者，有如伏羲之卦，豎以觀之，而天地定位也。此章以人身配於天地之六合，三部九候之法配天地人三才，人與天地參也。『眉批：此節照應“推而上之，上而不下，推而下之，下而不上。』”）²¹⁾

2) 要點 整理 分析

(1) 診察部位인 “尺, 中附上, 上附上”에 대한 注釋

尺·中附上·上附上에 대하여 “此審別形身臟腑外內之法也。……蓋以左右三部之脈，兼候形身之上下四旁，是關部之兩旁，即形身之兩脇，寸部之兩旁，即形身之兩腋。……中附上者，附左尺而上，左手之關脈也。……上附上右者，從右關而上，右寸口也。”라고 注釋하여 이 句節을 寸關尺三部脈診法에 관한 내용으로 보았다.

또 尺·中附上·上附上 三部脈의 內外 部位인 尺內, 尺外, 中附上內, 中附上外, 上附上內, 上附上外에 대하여 “所謂外內者，脈體本圓，用指向外以候內，向內以候外，候脈之兩側也。平按以候中，乃五臟之本位也。”라고 注釋하여 張景岳이 三部의 內外를 寸關尺脈體의 上下部로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寸關尺脈體의 內外側으로 보았는데, 具體的인 診脈方法은 脈體 위에 手指를 올리고 診指(診脈하는 手指)를 바깥쪽으로 밀어 外를 살피고, 안쪽으로 당겨 內를 살피고, 치우치지 않게 水平으로 올려 中을 살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張景岳의 說과 張隱庵의 說은 寸關尺內外부의 部位 確定에 관한 代表的인 兩大 學說이라고 할 수가 있다.

(2) 診察 원칙인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한 注釋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하여 “前曰廣明，後曰太衝，寸為陽，尺為陰，故以兩手關前以候形身之前，

21) 張隱庵 原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p.156~159.

關後以候形身之後.”라고 注釋하여 앞의 前字를 關前의 寸部脈으로 보고, 앞의 後字를 關後의 尺部脈으로 보아, 關前의 寸部脈을 통하여 몸 앞쪽 部位의 상황을 살피고 關後의 尺部脈을 통하여 몸 뒤쪽 部位의 상황을 살핀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張景岳의 주장과 대체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인다.

(3) 診察 部位인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한 注釋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하여 “上竟上者，從尺關而直上於魚也。下竟下者，從寸關而直下於尺也.”라고 注釋하여 寸部脈 끝의 魚際 部位와 尺部脈 끝이 되는 部位라고 보았다. 이 說은 吳昆의 “上竟上，寸之極也。下竟下，謂尺之盡也.”라고 注釋한 것과 張景岳이 “竟，盡也。言上而盡於上，在脈則盡於魚際，…… 下而盡於下，在脈則盡於尺部.”라고 注釋한 내용과 一脈相承한 것으로 보인다.

10. 高士宗

1) 注釋文 原文

尺內兩旁，則季脇也，尺外以候腎，尺裏以候腹。(病之內外，隨乎經脈，故舉脈體以明之。尺內猶言尺中，兩旁猶言左右，謂尺中左右兩手之脈，則主人身之季脇也。季脇，脇之盡處也。腰居季脇之外，故兩手尺外以候腎。腹居季脇之內，故兩手尺裏以候腹。脈氣自下而上，故先論尺部之左右外內也。)

中附上，左外以候肝，內以候鬲；右外以候胃，內以候脾。(中附上者，自左右兩尺中，而致於關上也。左外以候肝，內以候鬲者，左手關部之外，以候肝脈，關部之內，以候鬲中脈也。右外以候胃，內以候脾者，右手關部之外，以候胃脈，關部之內，以候脾脈也。脈氣自下而中，故次論關部之左右外內也。)

上附上，右外以候肺，內以候胸中；左外以候心，內以候臆中。(上附上者，自左右兩關上，而至於寸上也。右外以候肺，內以候胸中者，右手寸外以候肺脈，寸內以候胸中脈也。左外以候心，內以候臆中者，左手寸外以候心脈，寸內以候心包之臆中脈也。脈氣自中而上，故終論寸部之左右外內也。)

前以候前，後以候後。(脈有外內，復有前後。前以候前，尺前關前寸前，以候形身之前也；後以候後，寸後

關後尺後，以候形身之後也。)

上竟上者，胸喉中事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脈有外內前後，復有上下，是脈體之六合也。上竟上者，自寸上而竟上於魚際也。喉主天氣，位居胸上，故爲胸喉中事，乃上以候上也。下竟下者，自尺下而竟下於肘中也。足履乎地，股膝脛足，居腰與少腹之下，故爲少腹腰股膝脛足中事，乃下以候下也。)²²⁾

2) 要點 整理 分析

(1) 診察 部位인 “尺，中附上，上附上”에 대한 注釋

尺·中附上·上附上에 대하여 “病之內外，隨乎經脈，故舉脈體以明之。謂尺中左右兩手之脈，則主人身之季脇也。…… 脈氣自下而上，故先論尺部之左右外內也。…… 中附上者，自左右兩尺中，而致於關上也。…… 脈氣自下而中，故次論關部之左右外內也。…… 上附上者，自左右兩關上，而至於寸上也。…… 脈氣自中而上，故終論寸部之左右外內也.”라고 注釋하여 寸關尺 三部로 보았고, 本 句節을 寸口脈診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였으며, 上肢의 脈氣 흐름이 먼저 自下而上하여 尺部에 이르고, 다음에 自下而中하여 關部에 이르며, 마지막에 自中而上하여 寸부에 이른다고 설명하였다.

(2) 診察 원칙인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한 注釋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하여 “脈有外內，復有前後。前以候前，尺前關前寸前，以候形身之前也；後以候後，寸後關後尺後，以候形身之後也.”라고 注釋하여 앞 前字와 앞 後字를 각각 尺脈前部, 關脈前部, 寸脈前부와 寸脈後部, 關脈後部, 尺脈後부로 보았고, 이들을 통하여 각각 몸의 앞쪽과 뒤쪽 部位의 상태를 살필 수가 있다고 하였다.

高士宗의 이와 같은 주장은 吳昆의 “前，診者指前，後，診者指後.”라고 注釋한 것과 張景岳이 “分而言之，上半部爲前，下半部爲後.”라고 注釋한 부분과 類似하다.

(3) 診察 部位인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한 注釋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하여 “上竟上者，自寸上而竟上於魚際也。…… 下竟下者，自尺下而竟下於

22) 高士宗 原著. 于天星 按.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82. pp.132~135.

肘中也.”라고 注釋하여 “上竟上”은 “自寸上而竟上於魚際”의 部位에 해당되고 “下竟下”는 “自尺下而竟下於肘中”의 部位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下竟下”를 “自尺下而竟下於肘中”이라고 注釋한 것은 앞에서 “下竟下, 謂盡尺之脈動處也.”라고 注釋한 王冰과 王冰의 注釋을 그대로 인용한 滑壽의 注釋과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역시 滑壽와 같이 앞에서 本 句節을 寸關尺 三部 脈診法으로 보다가 여기에 와서는 다시 전혀 相關없는 尺膚按診法으로 해석하는 꼴이 되어, 앞뒤 내용이 一貫되지 못한 느낌이 들게 한다.

또 “脈有外內前後, 復有上下, 是脈體之六合也. …… 喉主天氣, 位居胸上, 故爲胸喉中事, 乃上以候上也. …… 足履乎地, 股膝脛足, 居腰與少腹之下, 故爲少腹腰股膝脛足中事, 乃下以候下也.”라고 注釋하여 이것이 앞의 “內以候內, 外以候外”와 “前以候前, 後以候後”의 診察 원칙과 같이 “上以候上, 下以候下”하는 診察 원칙에 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脈에도 外內와 前後와 上下가 있어 脈體의 六合을 이루기에, 이런 部位들을 통하여 대응되는 人體의 外內와 前後와 上下의 部位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Ⅲ. 考 察

1.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脇也” 一句가 寸口脈診法인가 尺膚按診法인가?

1) 寸口脈診法으로 본 注釋家들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脇也 ……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는 句節을 寸關尺三部脈診法으로 본 注釋家は 주로 滑壽, 馬蒔, 吳昆, 張景岳, 李仲梓, 張隱庵, 高士宗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滑壽는 經文의 “中附上”을 “附上, 如越人所定關中也.”라고 注釋하고 “上附上”을 “如越人所是寸口也.”라고 注釋하여 이를 寸關尺三部에 대한 脈診法으로 보았고, 馬蒔는 “尺”에 대하여 “此言臟腑之脈見之於各部者如此. 尺內者, 左右尺部也.”라고 注釋하고 “中附上”과 “上附上”에 대하여 “附而上之,

乃關脈也. …… 又附而上之, 即寸部也.”라고 注釋하여 寸關尺三部脈診法으로 보았다. 馬蒔는 또 “前以候前, 後以候後”를 해석함에 있어서 “左之寸口, 即人迎也, 名曰前, 前之所候, 皆胸之前膺及膻中之事. 右之寸口, 即氣口也, 名曰後, 後之所候, 皆胸之後背及氣管之事.”라고 注釋하여 모든 내용을 寸關尺三部脈이라는 초점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다. 吳昆은 “中附上”과 “上附上”에 대하여 “附上, 謂關也. …… 上附上, 謂寸也.”라고 注釋하였고,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하여 “上竟上, 寸之極也. 下竟下, 謂尺之盡也.”라고 注釋하여 寸部脈의 寸側 끝 부분과 尺部脈의 尺側 끝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寸關尺三部脈으로 보았다.

張景岳은 “尺”에 대하여 “尺內者, 關前曰寸, 關後曰尺 …… 尺者, 對寸而言. …… 關之前曰寸, 關之後曰尺.”라고 注釋하였고 “中附上”에 대하여 “中附上, 言附尺之上, 而居乎中者, 即關脈也.”라고 注釋하였으며, “上附上”에 대하여 “上附上, 言上而又上, 則寸脈也.”라고 注釋하여 이 句節을 寸關尺三部脈診法에 관한 내용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서 “尺外”, “尺裏”, “中附上內”, “中附上外”, “上附上內”, “上附上外”에 대하여 “尺外, 尺脈前半部也. 尺裏, 尺脈後半部也. …… 中附上, …… 卽關脈也. 左外, 言左關之前半部, 內言左關之後半部, 餘仿此.”라고 注釋하여, 尺關寸三部脈을 각각 前半부와 後半부로 다시 2等分하여 각각 診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앞의 여러 醫家들의 注釋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다. 그는 經文 中の 內外를 脈의 上下로 보는 이유에 관하여 寸關尺 各部의 脈은 그 幅이 좁아서 內와 外로 나누어 診察하는 것은 現實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 易卦의 六爻에서 上三爻는 위에 있으나 外卦로 간주하고 下三爻는 아래에 있으나 內卦로 간주하는 이치가 있어 이와 같이 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前以候前, 後以候後”에 대하여 “統而言之, 寸爲前, 尺爲後; 分而言之, 上半部爲前, 下半部爲後.”라고 注釋하여 주로 寸脈과 尺脈의 前半부와 後半부로 보기도 하였다.

李仲梓는 특별한 의견없이 전적으로 張景岳의 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張隱庵은 “尺”, “中附上”,

“上附上”에 대하여 “蓋以左右三部之脈，兼候形身之上下四旁，是關部之兩旁，即形身之兩脇，寸部之兩旁，即形身之兩腋。……中附上者，附左尺而上，左手之關脈也。……上附上者，從右關而上，右寸口也。”라고 注釋하여 寸關尺三部脈診法에 관한 내용으로 보았고, 또 “尺內”，“尺外”，“中附上內”，“中附上外”，“上附上內”，“上附上外”에 대하여 “所謂外內者，脈體本圓，用指向外以候內，向內以候外，候脈之兩側也。平按以候中，乃五臟之本位也。”라고 注釋하여 三部의 內外를 寸關尺 脈體의 內外側으로 보면서 脈體위에 手指를 올리고 診指(診脈하는 手指)를 바깥쪽으로 밀면 外를 살필 수가 있고, 안쪽으로 당기면 內를 살필 수가 있고, 치우치지 않게 水平으로 올리면 中을 살필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張景岳이 三部의 內外를 寸關尺 脈體의 上下部로 해석하는 것과 서로 다른 해석으로 寸關尺 內外부의 部位 確定에 관한 代表的인 兩大 學說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해서는 “前曰廣明，後曰太衝，寸為陽，尺為陰，故以兩手關前以候形身之前，關後以候形身之後。”라고 注釋하여 앞의 前字를 關前的 寸部脈으로 보고, 앞의 後字를 關後的 尺部脈으로 보아, 關前的 寸部脈을 통하여 몸 앞쪽 部位의 상황을 살피고 關後的 尺部脈을 통하여 몸 뒤쪽 部位의 상황을 살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張景岳의 견해와 동일하다. “上竟上”과 “下竟下”에 대해서는 “上竟上者，從尺關而直上於魚也。下竟下者，從寸關而直下於尺也。”라고 注釋하여 寸部脈 끝의 魚際 部位와 尺部脈 끝이 되는 部位라고 보았다. 이 說은 吳昆의 “上竟上，寸之極也。下竟下，謂尺之盡也。”라고 注釋한 것과 張景岳이 “竟，盡也。言上而盡於上，在脈則盡於魚際，……下而盡於下，在脈則盡於尺部。”라고 注釋한 내용과 一脈相承한 것으로 보인다.

高士宗은 “尺”，“中附上”，“上附上”에 대하여 “尺中左右兩手之脈，則主人身之季脇也。……中附上者，自左右兩尺中，而致於關上也。……上附上者，自左右兩關上，而至於寸上也。”라고 注釋하여 寸關尺三部脈診法으로 보았다. 또 “前以候前，後以候後”에 대하여 “脈有外內，復有前後。前以候前，尺前關前寸前，以候形身之前也；後以候後，寸後關後尺後，以候形身

之後也。”라고 注釋하여 앞 前字와 앞 後字를 각각 尺脈前部，關脈前部，寸脈前부와 寸脈後部，關脈後部，尺脈後部로 보았고, 이들을 통하여 각각 몸의 앞쪽과 뒤쪽 部位의 상태를 살필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吳昆의 “前，診者指前，後，診者指後。”라고 注釋한 것과 張景岳이 “分而言之，上半部爲前，下半部爲後。”라고 注釋한 부분과 類似하다.

이상과 같이 滑壽，馬蒔，吳昆，張景岳，李仲梓，張隱庵，高士宗 등은 본 句節에서 上·中·下の 診察 部位로 언급된 尺，中附上，上附上을 모두 寸口脈의 寸，關，尺三部脈診의 部位로 간주하였는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이 句節 經文의 내용상 左側부의 尺，中附上，上附上으로 心·肝·腎을 診候하고 右側부의 尺，中附上，上附上으로 肺·脾·腎을 診候한다고 한 것에서 분명 寸關尺 三部 分候의 뜻이 이미 內包되어 있고, 또 後世의 寸關尺三部로 五臟을 分候하는 學說, 내용과 비교하여 거의 일치해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된다²³⁾. 後世의 『脈經』의 寸關尺 三部脈의 五臟 分候 상황을 살펴보다라도 본 句節 經文 내용을 그대로 因襲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²⁴⁾²⁵⁾.

2) 尺膚按診法으로 본 注釋家들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脇也……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는 句節을 尺膚按診法으로 본 注釋家は 주로 楊上善，王冰，丹波元簡 등이 있는데, 이들은 본 句節에서 上·中·下の 診察 部位로 언급된 尺，中附上，上附上을 모두 손목에서 尺澤穴까지의 尺膚의 上中下 3개 診察 區域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보는 이유에 관하여 楊上善은 “中附上”과 “上附上”의 “附”를 “跗”라고 하면서 “跗當爲膚，古通用字，故爲跗耳。當尺裏以上皮膚。”²⁶⁾라고 하여 이것이 尺內側의 皮膚 部位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또 丹

23) 楊牧祥. 淺論寸口診法. 石家莊. 河北中醫. 1983.3. p.2.

24) 耿銀鎮. 寸關尺三部脈診法的起源. 石家莊. 河北中醫. 1982.3. p.3.

25) 高爾和. 淺談寸關尺臟腑定位. 石家莊. 河北中醫. 1981.2. pp.15~17.

26) 楊上善 原著. 李克光 主編. 黃帝內經太素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510.

波元簡은 “王注尺內謂尺澤之內也。此即診尺膚之部位。平人氣象論云，尺澀脈滑，尺寒脈細，王注亦云，謂尺膚也。邪氣臟腑病形篇云，善調尺者，不待於寸，又云，夫色脈與尺之相應，如桴鼓影響之相應也。論疾診尺篇云，尺膚澤，又云，尺肉弱。十三難云，脈數尺之皮膚亦數，脈急尺之皮膚亦急。史記倉公傳亦云，切其脈，循其尺。仲景云，按寸不及尺，皆其義也。而其所以謂之尺者，說文，尺，十寸也。人手卻十分動脈爲寸口，十寸爲尺，尺所以指。尺，規矩事也。從屍從乙。乙，所識也。周制，寸尺咫尋常仞諸度量，皆以人之體爲法。徐鍇曰：家語曰，布指知尺，舒肱知尋。大戴禮云：布指知寸，布手知尺，舒肱知尋。明是尺即謂臂內一尺之部分，而決非寸關尺之尺也。寸口分寸關尺三部，昉於難經，馬張諸家以寸關尺之尺釋之，與經旨差矣。”²⁷⁾라고 注釋하여 본 句節에 나오는 尺은 「平人氣象論」, 「邪氣臟腑病形篇」 그리고 「論疾診尺篇」에 나오는 尺膚按診法の 尺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寸口部位를 寸關尺三部로 나누게 된 것은 『難經』이 처음이기에 본 句節 내용은 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著者は 尺膚按診法으로 보는 것에 동의한다.

著者は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脇也……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는 句節을 尺膚按診法으로 보는 것에 동의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1) 經文 내용에 尺部를 통한 診察法을 언급함에 尺部를 尺內, 尺外, 尺裏라는 세 부분으로 分割하여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尺部를 寸關尺의 尺脈 部位로 보기에 는 무리가 많다. 왜냐하면 歷代醫書 중 길이가 1寸도 안 되고 굵기도 매우 가는 尺脈(撓動脈)을 縱으로 3等分하여 診脈한다는 寸口脈診法에 관한 記錄도 보이지 않고,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의 診脈法을 行한다는 자체가 現實적으로 技術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에서 尺內, 尺外, 尺裏의 内外를 張景岳이 “尺外, 尺脈前半部也. 尺裏, 尺脈後半部也. ……”

中附上, …… 左外, 言左關之前半部, 內言左關之後半部, 餘仿此. …… 左寸之前以候心, 左寸之後以候膻中.”라고 주장한 대로 안과 밖으로 보지 않고 上과 下로 본다면, 이는 寸關尺의 尺部脈을 上中下로 三等分하여 보는 것이 되는데, 尺部脈을 左中右로 三等分한 것 보다는 낫다고 할 수는 있으나 역시 部位가 너무 微細하여 현실적 의미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經文 내용 마무리 부분에 “前以候前, 後以候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寸關尺 脈診法과 別로 관계가 없어 보이고, 반면에 『素問論疾診尺篇』에서 尺膚按診法을 論함에 있어 “肘前獨熱者, 膺前熱; 肘後獨熱者, 肩背熱.”라고 한 尺膚診法の 原理와는 완전히 일치한 것이기에, 이 句節 全體를 尺膚按診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經文 내용에 “上竟上者, 胸喉中事也, 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역시 寸關尺 脈診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寸關尺三部脈診法에 있어서 寸關尺의 전체 길이가 1寸9분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다시 寸脈과 尺脈의 上下兩端 끝점만을 짚어서 脈을 본다는 것은 文獻記錄에도 보이지 않거나 현실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제대로 診脈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부분 내용은 “前以候前, 後以候後”라는 尺膚 分候 방식과 相通한 것으로 보이기에 “前以候前, 後以候後”의 前對前後對後 原理와 함께 上對上 下對下의 尺膚 分候原理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句節에 寸關尺 三部脈診法에 해당되지 않는 尺分三區(尺內, 尺外, 尺裏)의 診法이 보이고, 또 寸關尺 三部脈診法과 別로 관련이 없는 “前以候前, 後以候後”와 “上竟上者, 胸喉中事也, 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는 文句가 마무리 부분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句節은 寸關尺脈診法으로 보기에 어렵고, 尺膚三部按診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 尺膚按診法으로 본 本 經文 句節의 翻譯

(1) 原文: 『素問脈要精微論』: 尺內兩傍則季脇也,

27) 丹波元簡 原著,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一素問識.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p.88~89.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 中附上, 左外以候肝, 內以候鬲, 右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外以候心, 內以候臚中. 前以候前, 後以候後. 上竟上者, 胸喉中事也, 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

(2) 翻譯文: 尺膚部의 下端은 兩 손이 똑같은데, 內側으로 季脇部를 分候하고 外側으로 腎을 分候하며 가운데로 腹部를 分候한다. 尺膚部의 中段은 左臂는 外側으로 肝을 分候하고 內側으로 膈部를 分候하며, 右臂는 外側으로 胃를 分候하고 內側으로 脾를 分候한다. 尺膚部의 上段은 左臂는 外側으로 肺를 分候하고 內側으로 胸中을 分候하며, 左臂는 外側으로 心을 分候하고 內側으로 臚中을 分候한다. 尺膚部의 前面으로는 몸의 앞쪽 부분을 診候해야 하고, 尺膚部의 後面으로는 몸의 뒤쪽을 診候해야 한다. 尺膚部의 上段에서 곧바로 올라간 魚際部 部位로는 胸部와 喉中의 疾病을 診候해야 하고, 尺膚部의 下段에서 곧바로 내려간 肘橫紋 部位로는 少腹 腰 股 膝 脛 足 등의 疾病을 診候해야 한다²⁸⁾.

2.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脇也”一句가 寸關尺三部定位에 미친 影響

『內經』에 寸口에 대해 寸關尺三部로 나누어 診脈한다는 記錄은 보이지 않지만, 獨取寸口하여 診脈하는 原理와 方法에 대해서는 여러 篇에서 언급하고 있다. 『素問五藏別論』에 “帝曰: 氣口何以獨爲五藏主? 岐伯曰: 胃者, 水穀之海, 六府之大源也. 五味入口, 藏於胃, 以養五藏氣, 氣口亦太陰也, 是以五藏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²⁹⁾라 하여 寸口脈과 肺胃 間에 密接한 生理 關係가 있어 獨取寸口하면 五藏六腑의 病變을 살필 수가 있다고 寸口脈診의 原理를 설명하였다. 또 『素問平人氣象論』에 “欲知寸口太過與不及, 寸口之脈中手短者, 曰頭痛. 寸口脈中手長者, 曰足脛痛. 寸口脈沉而堅者, 曰病在中. 寸口

脈浮而盛者, 曰病在外. 寸口脈沉而弱, 曰寒熱及疝瘕少腹痛. 寸口脈沉而橫, 曰脅下有積, 腹中有橫積痛. 寸口脈沉而喘, 曰寒熱.”³⁰⁾라 하여 具體的인 寸口脈診法과 診候하는 해당 疾病들을 記錄하였다. 하지만 具體的인 寸關尺分劃定位와 臟腑身形 分候定位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本篇 『素問脈要精微論』에서 尺膚按診法을 論함에 있어서 “尺內兩傍則季脇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 中附上, 左外以候肝, 內以候鬲, 右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外以候心, 內以候臚中. 前以候前, 後以候後. 上竟上者, 胸喉中事也, 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고 하여 처음으로 尺膚部를 上中下 三部로 分劃하였고, 또 上中下 三部의 각각의 尺膚 部位에 해당되는 臟腑와 身形을 分候하도록 臟腑配屬과 身形配屬을 定해 주기까지 하였다. 이 내용은 비록 寸口脈診의 寸關尺三部 臟腑分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바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아주 밀접한 關係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로 『難經·二難』에 “脈有尺寸, 何謂也? 然. 尺寸者, 脈之大要會也. 從關至尺是尺內, 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是寸口內, 陽之所治也. 故分寸爲尺, 分尺爲寸, 故陰得尺內一寸, 陽得寸內九分, 尺寸終始一寸九分, 故曰尺寸也.”³¹⁾라 하였는데, 이는 『內經』以來로 처음으로 寸口脈에 關이라는 部位를 언급함으로써 關을 境界點으로 한 寸脈과 尺脈을 確定지어 주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關을 다만 한 개의 境界點으로만 이야기 하고 있어 寸關尺三部脈의 關脈과는 거리가 있으며, 다만 寸脈과 尺脈의 길이가 각각 0.9 분과 1寸이 된다고만 했을 뿐이다. 그 後에 王叔和가 『難經』의 理論을 繼承하여 더 나아가서 『脈經·卷一分別三關境界脈候所主第三』에서 “從魚際至高骨, 卻行一寸, 其中名曰寸口. 從寸至尺, 名曰尺澤, 故曰尺寸. 寸後尺前名曰關, 陽出陰入, 以關爲界. 陽出三分, 陰入三分, 故曰三陰三陽. 陽生於尺動於寸, 陰生

28)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37.

29)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165~167.

30)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247~248.

31) 南京中醫學院 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4~6.

於寸動於尺. 寸主射上焦, 出頭及皮毛竟手. 關主射中焦, 腹及腰. 尺主射下焦, 少腹至足.”³²⁾이라 하여 關의 中心點을 腕後 高骨(撓骨 莖突)로 定하고 關을 中心으로 關部脈 6分, 關前 寸部脈 6分, 關後 尺部脈 7分으로 寸關尺 三部脈의 位置와 長이를 確定지어 攄으로써 비로소 寸口脈의 寸關尺三部定位가 완성되었다³³⁾. 그런데 『難經·二難』에서 1寸9分の 寸寸(寸關尺)脈을 導出한 全過程을 살펴보면, 二難에서 “從關至尺是尺內, …… 從關至魚際是寸口內, …… 故分寸爲尺, 分尺爲寸, 故陰得尺內一寸, 陽得寸內九分, 尺寸終始一寸九分, 故曰尺寸也.”³⁴⁾라고 한 것처럼 이는 腕에서 肘까지의 尺膚部의 筋 肺經 經脈(動脈)을 關에서 尺澤까지의 1尺과 關에서 魚際까지의 1寸을 각각 壓縮시켜 1寸과 9分을 取한데서 由來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이치와 방식으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膚部 上中下三部分候區域을 壓縮하면 바로 寸口脈의 寸關尺三部 診脈部位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膚按診法에서 提示하고 있는 左臂의 上中下 區域으로 心肝腎을 分候하고 右臂의 上中下 區域으로 肺脾腎을 分候하는 方法과, 이후의 『難經·十八難』³⁵⁾과 『脈經·卷一·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逆順』³⁶⁾의 寸關尺三部 五臟分候法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보아, 『難經』과 『脈經』이 本句節 내용을 一脈相承했을 可能性이 크다.

이상의 分析으로 보아 寸口脈의 寸關尺三部定位는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脇也 ……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는 句節에 나타난 尺膚按診法에서 起源되었고, 『難經』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王叔和의 『脈經』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근거로 저자는 『素問·脈要精

微論』의 해당 經文은 寸關尺三部脈診法에 관한 內容은 아니고 尺膚三部按診法에 관한 內容이며, 그러면서도 이 부분 尺膚三部按診法의 內容은 또 후세의 寸口脈診의 寸關尺三部 分割과 寸關尺三部 臟腑分候의 原形이 되었다고 본다.

3. 『內經』의 寸口部 및 尺膚部를 통한 臟腑身形分候의 基本原理

『內經』은 人體의 一定 部位를 통하여 臟腑와 身形을 分候하는 原理에 관하여 여러 가지 언급을 하였는데, 우선 『素問·三部九候論』에 “帝曰: 願聞天地之至數, 合於人形血氣, 通決死生, 爲之奈何? 岐伯曰: 天地之至數始於一, 終於九焉. 一者天, 二者地, 三者人, 因而三之, 三三者九, 以應九野. 故人有三部, 部有三候, 以決死生, 以處百病, 以調虛實, 而除邪疾. 帝曰: 何謂三部? 岐伯曰: 有下部, 有中部, 有上部, 部各有三候. 三候者, 有天, 有地, 有人也. 必指而導之, 乃以爲真. 上部天, 兩額之動脈; 上部地, 兩頰之動脈; 上部人, 耳前之動脈. 中部天, 手太陰也; 中部地, 手陽明也; 中部人, 手少陰也. 下部天, 足厥陰也; 下部地, 足少陰也; 下部人, 足太陰也. 故下部之天以候肝, 地以候腎, 人以候脾胃之氣. 帝曰: 中部之候奈何? 岐伯曰: 亦有天, 亦有地, 亦有人, 天以候肺, 地以候胸中之氣, 人以候心. 帝曰: 上部以何候之? 岐伯曰: 亦有天, 亦有地, 亦有人. 天以候頭角之氣, 地以候口齒之氣, 人以候耳目之氣. 三部者, 各有天, 各有地, 各有人. 三而成天, 三而成地, 三而成人. 三而三之, 合則爲九, 九分爲九野, 九野爲九臟. 故神臟五, 形臟四, 合爲九臟. 五臟已敗, 其色必夭, 夭必死矣.”³⁷⁾라 하여 人體 上部, 中部, 下部의 經脈의 脈動部位를 살펴보면 각각 相應하는 人體의 上·中·下 各部의 機能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크게 틀을 定하여 주었다.

또 『素問·脈要精微論』에서 尺膚按診法을 論함에 있어서 “尺內兩傍則季脇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 中附上, 左外以候肝, 內以候鬲, 右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外以候心, 內

32) 王叔和 原著.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7~8.

33)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中). 北京. 北京出版社. 1994. p.1336.

34) 南京中醫學院 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4~6.

35) 南京中醫學院 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45~46.

36) 王叔和 原著.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16~17.

37)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288~291.

以候臆中. 前以候前, 後以候後. 上竟上者, 胸喉中事也, 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고 하여 尺膚按診의 臟腑 身形の 分候方法과 原理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素問脈要精微論』이 臟腑 身形을 尺膚部位에 配屬하여 分候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人體에서 각 臟腑와 形體 組織 器官이 所在한 內外, 左右, 前後, 上下의 分布 상태를 근거로 삼아, 각각 대응되는 尺膚의 內外, 左右, 前後, 上下의 部位를 살펴 診察한다는 原理이다. 이것을 『素問脈要精微論』의 言語表現 방식으로 요약하면 즉 “內以候內, 外以候外”, “左以候左, 右以候右”, “前以候前, 候以候後”, “上以候上, 下以候下”가 된다. 張景岳은 이런 分部 分候의 원칙에 대해 “本篇上竟上者言胸喉中事, 下竟下者言少腹足膝中事, 분명 上以候上, 下以候下, 此自本經不易之理.”³⁸⁾라고 하여 이러한 診察 원칙이 內經의 不易의 原理라고 強調하였고, 王冰은 또 “少腹胞, 氣海在膀胱, 腰股膝脛足中之氣, 動靜皆分其遠近及連接處所名目以候之, 知其善惡也.”³⁹⁾라고 하여 人體 각 部位의 氣運 動靜이 部位的으로 멀고 가까움에 따라 尺膚部位에서도 멀고 가깝게 반영되는 것이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는 이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內經』에서 提示한 人體部位의 尺膚 分候 原理이긴 하지만, 寸口脈診의 寸關尺三部脈診에도 그대로 適用된다고 볼 수가 있다. 『難經』은 이러한 尺膚分候의 原理를 그대로 繼承하였는데, 「十八難」 뒷부분을 보면 “脈有三部九候, 各何主之? 然: 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浮中沉也. 上部法天, 主胸以上至頭之有疾也; 中部法人, 主膈以下至臍之有疾也; 下部法地, 主臍以下至足之有疾也.”⁴⁰⁾라 하여 寸關尺脈으로 人體身形臟腑 各부의 상황을 分候하는 原理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외에 『難經』은 또 「十八難」 앞부분에서 이와 다소 差異나는 經脈臟腑 分候原理를 언급하였다. 「

十八難」을 보면 “脈有三部, 部有四經, 手有太陰陽明, 足有太陽少陰, 爲上下部, 何謂也? 然: 手太陰陽明金也, 足少陰太陽水也, 金生水, 水流下行而不能上, 故在下部也. 足厥陰少陽木也, 生手太陽少陰火, 火炎上行而不能下, 故爲上部. 手心主少陽火, 生足太陰陽明土, 土主中官, 故在中部也. 此皆五行子母更相生養者也.”⁴¹⁾라 하여 五行이 번갈아가면서 相生하는 이치에 근거하여 表裏관계가 되고 五行屬性이 같은 經脈臟腑를 같은 脈位에 配屬시켰는데, 이후에 王叔和도 이 原理에 따라 『脈經』卷一 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逆順에서 “心部在左手關前寸口是也, 即手少陰經也. 與手太陽爲表裏, 以小腸合爲府. 合於上焦, 名曰神庭, 在龜尾下五分. 肝部在左手關上是也, 足厥陰經也. 與足少陽爲表裏, 以膽合爲府. 合於中焦, 名曰胞門(一作少陽), 在太倉左右三寸. 腎部在左手關後尺中是也, 足少陰經也. 與足太陽爲表裏, 以膀胱合爲府. 合於下焦, 在關元左. 肺部在右手關前寸口是也, 手太陰經也. 與手陽明爲表裏, 以大腸合爲府. 合於上焦, 名呼吸之府, 在雲門. 脾部在右手關上是也, 足太陰經也. 與足陽明爲表裏, 以胃合爲府. 合於中焦脾胃之間, 名曰章門, 在季脅前一寸半. 腎部在右手關後尺中是也, 足少陰經也, 與足太陽爲表裏, 以膀胱合爲府. 合於下焦, 在關元右. 左屬腎, 右爲子戶, 名曰三焦.”⁴²⁾라 하여 寸關尺三部에 각각 表裏관계가 있는 臟과 腑를 함께 配屬시켰다. 이렇게 되면 左寸部脈에 心小腸이 配屬되고 右寸部脈에 肺大腸이 配屬되게 되는데, 이는 『素問脈要精微論』의 “上以候上, 下以候下”의 分候 原理와 어긋난다. 즉 人體 下部인 下腹部에 있는 大小腸이 人體 上部 部位를 分候해야 하는 左右 寸部脈에 配定된은 問題가 된다는 것이다. 張景岳은 이에 대하여 “本篇上竟上者言胸喉中事, 下竟下者言少腹足膝中事, 분명 上以候上, 下以候下, 此自本經不易之理. 而王氏脈經, 乃謂心部在左手關前寸口是也, 與手太陽爲表裏, 以小腸合爲腑, 合於上焦; 肺部在右手關前寸口是也, 與手陽明爲表裏, 以大腸合爲腑, 合於上焦. 以致後人遂有左心小腸、右肺大腸之配, 下反

38) 張景岳 原著,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7~79.

39)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120~121.

40) 南京中醫學院 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45~46.

41) 南京中醫學院 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45~46.

42) 王叔和 原著,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16~17.

居上, 其謬甚矣. 據其所云, 不過以臟腑之配合如此; 抑豈知經分表裏, 脈自不同. 如脾經自足而上行走腹, 胃經自頭而下行走足, 升降交通, 以成陰陽之用; 又豈必上則皆上, 下則皆下, 而謂其盡歸一處耶? 且自秦漢而下, 未聞有以大小腸取於兩寸者, 扁鵲仲景諸君心傳可考; 自晉及今, 乃有此謬, 訛以傳訛, 愈久愈遠, 誤者可勝言哉! 無怪乎醫之日拙也. 此之不經, 雖出於脈訣之編次, 而創言者謂非叔和而誰?”⁴³⁾라고 하여 王叔和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비판하였다. 著者は『素問脈要精微論』의 分候原理에 근거하여 張景岳의 주장이 맞다고 보며, 五臟六腑의 具體的인 寸關尺三部 配位 分候問題에 대해서는 다시 専門적으로 研究할 계획이다.

IV. 結 論

『素問脈要精微論』의 尺膚診 및 寸關尺三部診 關聯內容의 歷代 注釋에 대해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脇也 ……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는 句節 내용에 대하여 馬蒔, 張景岳, 李中梓, 張隱庵 등은 寸關尺三部脈診法으로 간주하였고 楊上善, 王冰, 丹波元簡 등은 尺膚三部診法으로 간주하였는데, 尺膚三部按診法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脇也 ……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는 句節이 비록 尺膚三部診法에 해당되는 內容이긴 하지만, 그 속에 이미 寸關尺三部定位의 原理가 고스란히 內包되어 있기에, 이 것이 바로 寸關尺三部의 定位의 淵源이자 原形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寸口脈診의 寸關尺三部 定位은 바로 本 句節에 나오는 尺膚三部按診法의 壓縮版이라고 볼 수가 있다.

3) 『素問脈要精微論』의 尺膚按診法에서 起源된 寸關尺三部의 分劃定位은 『難經』 二難과 十八難에서

발전되었고, 『脈經』에 의해 완성되었다.

4) 『素問脈要精微論』에서 提示한 尺膚按診法의 臟腑身形의 分候原理는 “前以候前, 後以候後”의 原理로, 즉 人體解剖學의 位置와 대응하는 原理에 속한다. 經文에 근거하여 이 原理를 좀 더 整理하면 “前以候前 後以候後”, “左以候左, 右以候右”, “內以候內, 裏以候裏, 外以候外”, “上以候上, 下以候下”로 요약할 수가 있다.

5) 『素問脈要精微論』에서 提示한 尺膚按診法의 臟腑 및 身形의 分候原理로 보면, 大腸과 小腸을 人體 上部와 대응되는 左右 寸部에 配屬시킨 『脈經』은 經旨에서 벗어난 것이고, 大腸과 小腸을 人體 下部와 대응되는 左右 兩尺에 配屬시킨 『類經』등의 說이 經旨에 부합된다.

6) 結論적으로 五臟六腑와 人體身形의 寸關尺三部 分候配屬은 『素問脈要精微論』의 分候原理에 따르는 것이 內經 本然의 要旨라고 할 수가 있다.

參考文獻

1.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165~167, 236~237, 247~248, 288~291.
2. 耿銀鎮. 寸關尺三部脈診法の起源. 石家莊. 河北中醫. 1982.3. pp.2~3.
3. 楊牧祥. 淺論寸口診法. 石家莊. 河北中醫. 1983. 3. pp.2~4.
4. 高爾和. 淺談寸關尺臟腑定位. 石家莊. 河北中醫. 1981.2. pp.15~17.
5. 周鳳梧, 張燦理. 黃帝內經素問語釋. 濟南.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5. pp.182~183.
6. 龍伯堅. 黃帝內經集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4. pp.242~243.
7. 南京中醫學院醫經教研組 編著. 黃帝內經素問譯釋(第二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147~148.
8. 張登本 主編. 白話通解黃帝內經 第一卷. 西安. 世界圖書出版公司. 2000. pp.444~445.

43) 張景岳 原著.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7~79.

9. 楊上善 原著, 李克光 主編. 黃帝內經太素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p.510~511.
10.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120~121.
11. 滑壽 原著, 李玉清等 主編. 滑壽醫學全書讀素問鈔.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8~12.
12. 馬蒔 原著, 田代華 主校.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129~130.
13. 吳昆 原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p.81~82.
14. 張景岳 原著,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7~79.
15. 李中梓 原著, 郭靄春, 高文鑄 語譯. 內經知要補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3. pp.52~53.
16. 丹波元簡 原著,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一, 素問識.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p.88~89.
17. 張隱庵 原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p.156~159.
18. 高士宗 原著, 于天星 按.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82. pp.132~135.
19. 南京中醫學院 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4~6, 45~46.
20. 王叔和 原著,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7~8, 16~17.
21.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中). 北京, 北京出版社. 1994. p.1336.

